60년 친구의 소감문 1 (2023.10.31.)

윤충남 (전 하버드대 옌칭도서관 한국 전적 책임자)

한국에서 송상현 교수가 자신의 회고록과 할아버지 고하 송진우 일대기와 자료집 3권을 우편으로 보내서 어제 받았다.

잘 읽어보고 나중에 하바드 도서관에 기증하려고 한다.

한국현대정치사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고하의 일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송 교수의 철저한 연구 결과 이처럼 방대한 역사 자료집이 완성되어 손자로서 훌륭한 자랑스러운 업적이고 특히 한국정치사 연구에 기여가 크겠다.

송 교수의 자서전 고독한 도전은 몇 백 페이지 분량에 무게도 상당해서 팔순 노인이 들고 읽을 수가 없어 책상위에 놓고 조금씩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나는 송 교수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전주 북중 일년 선배인데 중학교 시절에 자주 만나고 놀러가서 많이 배우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시절에도 법대 문리대가 인접해 있어 만나면 반가웠고 돈암동 집에도 들리고 했었다.

대학 졸업 후 거의 이십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내가 하바드 옌칭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뚜벅 뚜벅 걸어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고 반가워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 해 걸러 하바드 법대에서 한국법을 가르치러 오는데 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우리는 지난 세월을 나누며 새롭게 우정을 다짐했다.

한 해는 모친도 같이 오셔서 모시고 다녔고, 재혁이는 하바드, 유진이는 브라운대학에 다녀서 가족들과도 긴밀한 인연을 맺었다.

송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된 후 헤이그에서 지내게 되어 몇 년간 만날 수 없었다.

임무 마치고 귀국하여 어떻게 우리 소식을 듣고 보스톤에 와서 연락이 왔었는데 당시 재활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고 극단적인 생각만 할 때여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메시지를 남겼었다.

십년 넘게 병수발하면서 그리고 어린 손주들 돌보며 이젠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여 붙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한국에도 데리고 가서 친구들도 만났는데 송 교수한테도 연락해서 지난 번 방문 때 호텔에 부인과 함께 찾아와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의 회고록을 천천히 읽으며 주마등처럼 어린 시절이 서로 겹쳐 내 자신을 돌아보는 느낌이고 회상하게 된다.

송 교수는 고하의 자랑스런 손자이며 한국에서 손꼽는 천재다. 법학 교수가 미국에서 학위,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수학하며 자세히 적은 일상생활은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고,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경험은 국제법상 귀중한 판례가 되어 한국인의 뛰어난 업적이다.

책이 너무 무거워 들었다 놨다 번갈아가며 천천히 읽는데 하바드 법대에서 가르칠 때 내 이름도 등장해서 고마웠다.

언제 또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고록속에 우리의 인연이 남아 있어 귀중한 인연이다.

내 책에도 송 교수의 글이 실려 있다.

60년 친구의 소감문 2 (2023.11.9.)

오랜만에 책을 읽고 있다.
송상현 교수가 보낸 회고록 고독한 도전이다.
워낙 방대하고 무거워 팔순 넘은 노인이 들고 읽긴 쉽지가 않다.
페이지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들은 감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그의 능력이 자랑스럽다.
각국의 수뇌들을 만나고 나라마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소상히 적어 그의 천재성에 놀라기도 한다.
부인과 동행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여행하고 그들의 행복한 일생을 보여준다.
가을의 계절에 책 한권을 읽을 수 있어 다행이고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송 교수의 회고록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며 한없이 작게 만든다.
하지만 나대로의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